

# 인, '불교 역사·예술·철학 결집한다'

주정부, 불교유적 조명 첫 국제회의 개최

2월 1~3일 개최...120여 불교·역사학자, 스님 참여

고대 동인도 불교문화의 정수를 고스란히 품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세인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는 곳, 오릿사(Odisha) 주(州) 우다야기리(Udayagiri)에서 '다이아몬드 트라이앵글(Diamond Triangle) 불교 유적과 그 가치'를 주제로 한 첫 국제회의가 열렸다.

인도타임즈(The Times of India)는 최근 "1980년대부터 조사·발굴되기 시작한 우다야기리, 랄리트기리(Lalitgiri), 라트나기리(Ratnagiri) 불교유적의 가치를 점검하고 알리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보도하고, "오릿사 주(州)정부의 문화관광부가 '해양과 동남아시아학 오릿사연구소(Odisha Institute of Maritime and South East Asian Studies)와 함께 진행된 이번 국제회의에는 세계 각국에서 120여 명의 불교학자, 스님, 관광사업 종사자 등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오릿사 문화관광부 차관 아슈 트리패티(Ashok Tripathy)는 "주정부는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우다야기리, 랄리트기리, 라트나기리의 불교유적의 가치를 짚어내는 한편 그 지리·역사적 연결고리를 끄집어내, 세 지역의 불교유적을 연결한 '다이아몬드 트라이앵글(Diamond Triangle)'이 공인되기 바란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오릿사 주 소재 불교유적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오릿사 관광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시리 동남아시아·해양연구소장 스닐 팻네익(Dr. Sunil Patnaik) 박사는 "이번 국제회의는 고대 오릿사의 찬란했던 불교 예술과 철학을 결집하고 홍보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더했다.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발굴된 우다야기리는 발굴 당시 잘 보존된 유적과 그 규모에 인도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도 오릿사주의 우다야기리에서 발견된 불교유적지

오릿사 주의 최대 불교유적이다. 이번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우다야기리 불교유적 가운데 '8엽 형태의 전탑 형식의 불탑과 승원(탑탈 뒷편)'과 '우다야기리 승원 터 입구'에 주목했다.

불탑의 경우, 탑신 사방에 수놓은 각기 다른 자세의 불상의 수려함이 조명됐다. 또한 그 뒤편 승원의 경우, 건축 양식과 내실의 불상 및 보살상이 라트나기리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됐다.

이는 '다이아몬드 트라이앵글(Diamond Triangle)'의 개연성에 힘을 실어주는 대

목이다.

또한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우다야기리 승원 터에 이르는 길'도 주목 받았다. 우다야기리 승원의 찬란했던 사격을 엿보게 하는 이 길의 끝부분에는 두 개의 석판이 인방 블록으로 세워져 있고, 그 위를 다른 석판이 덮고 있다. 정중하고 순수한 조각으로 뛰어난 건축 양식을 보인 석판에는 붓다, 아미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또한 인도타임즈는 문화관광부 우파드하(H.S.Upadhyay) 국장의 말을 인용, "세 지역에서 진행된 조사·발굴을 통해 찬란

오종욱 편집위원

# 中 "티베트인 분신 부추겼다"

티베트 승려에 사형선고

티베트 승려가 동족(同族)의 분신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중국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신화통신은 1월 31일(현지시간) "쓰촨성 중급인민법원은 뤼팡궁주어 스님에게 사형유예를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티베트인 8명에게 분신을 교사해 결국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형유예는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수형 생활을 지켜보면서 반성 정도를 보고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이 가능하게 한 제도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망명 중인 티베트의 정칙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추종자들의 지시에 따라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분신을 부추기는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실제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냐은 기자**

우명주 박사의

##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불교 <6>



암베드카르 사후 현대인도불교

1956년 10월 13일에 있었던 개종식에서 암베드카르와 40만 명의 불가촉천민들은 힌두교를 떠나 불자가 됐음을 천명했다. 이렇게 암베드카르에 의한 집단 개종으로 시작된 불교세력은 '신불교'라고 불리게 됐고 이렇게 불자가 된 이들은 '신불교도'가 됐다. 그러나 이 신불교운동은 시작과 동시에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56년 12월 6일, 암베드카르가 재판(再版)을 위해 손보고 있던 자신의 책 <붓다와 그의 가르침> 원고 위에 얹드린 채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가 공식적으로 개종을 한 후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였다.

불교에 대해 많은 탐색과 모색 끝에 개종을 한 암베드카르와는 달리 불가촉천민들은 사실 불교에의 호감 보다는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으로 개종을 했다는 편이 옳다. 따라서 그들은 불교에 대해 그다지 많은 것을 알지 못했다. 암베드카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들은 지도자를 잃었고 불교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컸다.

이때 새로운 불자가 된 이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상카라 시타였다. 상카라시타는 영국인으로 1950년 인도 사르나트에서 수계를 받고

스님이 되었다. 그는 암베드카르 생전에 그를 세차례 만난 적이 있었고 개종식에 대해 함께 의논을 하기도 했다. 암베드카르가 사망하던 날 그는 암베드카르와 함께 개종한 이들에게 연설을 하기 위해 개종식이 열렸던 나그푸르로 가던 길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지도자의 별세 소식을 듣고 비통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고 불교에 대해 가르치며 5일간 머물렀다. 그 동

개종식 이후 불자 18만~325만 명 ↑  
현재 인도 불자수 795만 여 명

암베드카르 사후 불교 정체돼  
양적 성장했으나 질적 성장은 낮아

안에 약 3천명의 사람들이 또 불교에 귀의했다. 또한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상카라시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설법을 하고 사원을 짓고 불상을 세우고 여러 의식들을 집전했다. 그는 1965년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이후에도 자주 인도를 방문하고 신불교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었다.

암베드카르 사후에도 몇 차례 대규모 개종식이 있었고 암베드카르 생전에 75

# 40만 명 불가촉천민 '신불교'로 개종



암베드카르 동상에 참배하는 인도인들

만 명이었던 불자들의 수는 1957년 초에는 400만 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 불교로의 개종운동은 주춤하게 되는데 이는 아마도 암베드카르의 추종자들이 거의 다 개종을 한 탓으로 보인다.

암베드카르는 전불가촉천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그가 가장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집단은 자신이 속한 마하르 카스트였다. 그리고 그의 개종요청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도 당연히 마하르 카스트가 개종을 하고 그 개종운동은 그 기세가 한 풀 꺾이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암베드카르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불가촉천민들에게 개종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 사라져 버렸다.

또한 개종을 한 불가촉천민들도 불교에 대해 알 기회를 그다지 많이 가지지 못했다. 상카라시타에 따르면 암베드카르 사후에 개종식은 암베드카르가 설립한 정당인 정치인들이나 대각회의 승려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치인들은 신불교도들에게 불교에 대해 교육할 만큼 불교에 대해 알지 못했고 다른 나라에서 온 대각회의 승려들은 인도에 있는 자신들의 사원을 관리하기에 바쁜 처지였다. 그리고 외

국인인 그들은 불가촉천민 출신인 신불교도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상카라시타는 대다수의 신불교도들이 개종식 이후에 한번도 승려들을 만나지 못하는 등, 불교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반불교적인 생활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불교도들은 개종 이후 어떤 사회적 변화를 느낄 수도 없었다. 개종을 하고 힌두교를 버렸다고는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상위 카스트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개종으로 인한 심리적 효과는 무척 긍정적인 것이었다. 많은 신불교도들은 더 이상 자신들은 '천민'이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찌되었든 대규모 개종식의 결과로 불교인구는 크게 늘어났다. 1951년 18만 823명이었던 불교인구가 1961년 325만 227명에 달했으니 실로 급격하게 불자의 수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그 중 278만 9501명이 마하라스트라주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개종운동이 위에서 언급한 대로 마하르 카스트에서 가장 활발하고 다른 주의 불가촉천민들 사이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1971년의 불교 인구는 385만 2377명이었다. 즉

암베드카르 사후에 신불교 운동이 그다지 성장하지 못했음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신불교 운동에 있어 암베드카르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2000년 실시된 인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당시 인도의 불교인구는 795만 5207명으로 전체 인구의 0.8%에 달한다. 지금도 종종 불가촉천민들이 집단개종식이 열리기도 한다. 집단개종식의 시초는 불교도들이었으나 현재 인도에서 개종식을 여는 불가촉천민들이 모두 불교로 개종하는 것은 아니다. 이슬람교나 기독교로의 개종도 거의 같은 수로 이루어지고 있다.

암베드카르 사후 지지되었던 불교에 대한 교육 부족도 많이 개선되었다. 시타르타 대학, 밀린다 대학, 암베드카르 대학 등이 설립되었으며 불어와 불교학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 출신 승려의 수도 늘었으며 의식집전이나 포교사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생겨났다. 그러나 수적인 성장에 비해 불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라는 질적 성장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인도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불교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불교는 일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야 남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글쓴이 : 해천법사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범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유영재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44쪽 / 정가 25,000원

육임이 보인다 **신사주학 핵심비결** 한국인의 별칭 **자미두수 비법**  
 功念 지음 / 4x6배판/양장본/70,000원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4x6배판/高山 영성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그림 당사주 대전**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4x6배판/이산임,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徐昇煥 지음/4x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론  
신국판/양장본/신명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